

환경보전의식 및 환경보전행동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siousness,
Environmental Conservation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 Centered on Seoul City Housewives-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교 수 최 남 숙
박사과정 이 소 영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
Professor : Choi, Nam Sook
Doctoral Course : Lee, So Young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논의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chieve regarding the environmental problem due to excessive economic development for human being's continous life and to try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1)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activity are closely correlated and also postively related to quality of life. Accordingly, environmenal consciousness should be inspired and the environmental activities performed successfully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so that we can lead higher quality of life.

2) Income takes the highest position in the life-influncing factor with the following sequence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preservation acitivity, housekeeper's education level and age. So, earlier and steady education are important in raising the education level to have people equipped with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activity. Moreover, we should be able to create income through education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Accordingly, we should take a positive measure for enhancing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quality of life to meet two solutions, such as mankind's continuous development and value-oriented life.

1. 서론

21세기의 삶의 목표는 “인류의 지속적인 삶”과 “삶의 질적 향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보전”과 “삶의 질”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나라는 전체인구의 84%가 도시지역에 밀집하여 살고 있으며, 급증하는 도시인구로 녹지의 감소는 물론 환경 오염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는 국민의 90%정도가 도시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환경파괴는 물론 국민전체의 삶의 질이 극히 열악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의식수준의 변화는 양에서 질을 추구하고 중요시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주영원, 1998) 그것은 지난날의 경제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절대빈곤인구의 비율이 10%이하로 감소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997년 기준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 동안의 인류는 역사와 함께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으나 자연환경, 즉 생태계의 보전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의 후기산업사회는 인류의 지속적인 삶을 보장하는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을 변화해 가면서 환경문제를 해결(박병운, 2000)하고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즉 효율성과 형평성 뿐만 아니라 쾌적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가치관의 변화와 양에서 질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궁극적인 목표인 환경보전과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인류의 지속적인 삶을 위해 그 동안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환경개발로 인해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노력은 관심 밖이었던 것이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환경과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삶의 질에 있어서 환경의 질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큰 것이다. 즉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보전활동을 잘 수행해야만 한다. 환경보전행동을 잘 수행하려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이나 환경을 파괴시키는 요인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배제시키는 것이고,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고하고 생활양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속적인 삶을 위해서는 환경문제 해결이 시급한데, 이 환경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삶의 질에 있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은 이미 알고 있지만 실제로 아직 환경보전의식이나 환경보전행동이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연구는 미약했던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있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과 환경친화적 삶이라는 두 가지 해결방안을 충족시키기 위한 동기로부터 시작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점을 환경보전에서 찾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개념은 21세기의 인류의 목표임과 동시에 우리의 목표이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사회는 물질적인 풍요함보다는 정신적인 행복을 더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에서의 삶의 질의 문제는 점차 중요하다. 삶의 질의 개념은 극히 주관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여 사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주부는 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책임지고 있으며, 환경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기업이나 정부의 환경정책과 환경오염의 시각을 바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부를 대상으로 삶의 질과 환경보전의식 및 환경보전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가정에서부터 주부를 통해 환경보전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II. 이론적 배경

가. 환경보전의식 및 환경보전행동과 삶의 질

1970년대까지 지난 약 반세기 동안 우리 인류가 겪은 동·서 이념대립의 역사적 소용돌이를 거쳐 1980년대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과거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동서대립의 세계질서가 깨지고 이제 바야흐로 범지구적 환경문제를 놓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태동되었다.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회의에서 채택된 「유엔인간환경선언」은 각 나라가 자국 내의 활동이 다른 나라의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고,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환경과 발전을 위한 리우선언」은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기본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 즉 경제성장도 이루면서 환경도 보전해야 함을 전제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1995). 경제성장과 함께 또 생각해야 할 중요한 패러다임은 삶의 질이다.

삶의 질에 관한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인간의 욕구 체계와 가치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196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생활의 질적 가치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소득이나 GNP만을 기준으로 해서 선·후진국을 나누는 것은 물질로 인간의 생의 가치를 측정하려는 것과 같다는 반성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클럽의 두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 1972)와 「한계를 넘어서」(Beyond the Limits, 1992)에서는 물질적인 성장이 반드시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며,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룩한 사회에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하혜수, 1996).

즉, 인간의 생활에 대한 관심이 생활의 양적 측면에서 질적 측면으로 이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

제성장으로 비롯된 물질적 필요가 행복의 전부가 아니고, 물질적 충족을 넘어서 정신적 충실과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게 된 것이다. 선진국에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생활의 여유가 생긴 것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한 근본 원인이며 환경파괴의 심각화, 범죄와 폭력의 증가 등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소득수준이 낮고 물질적인 만족이 충족되지 않은 시대에 있어서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생활수준의 향상을 주로 기대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있어서의 경제성장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공해 등에 의한 환경 파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물가가 급등하고 인간성에 대한 경시가 가속화됨에 따라 경제성장의 부정적 측면을 강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가치있는 생활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그 동안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는 미명하에 여가시간의 부족, 사회보장제도의 불충분, 공해의 심각화, 교통의 혼잡과 불편 등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경제규모와 국민소득의 증대로 국민들은 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생활상의 편리성의 증대로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자유시간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노동에 대한 생각도 단순히 생활에 대한 “량”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유있는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質”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는 국민생활의 각 방면에 선택의 범위를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욕구도 다양하게 변화시켰다.

이러한 국민의식의 변화는 인간성의 회복과 인간으로서의 가치있는 생활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켰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제성장하에서의 급격한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속에서 고립감, 무력감, 소외감이 증대되었고, 도시화의 진전, 조직의 거대화·복잡화 그리고 고도의 분업화 등이 직장에 있어서의 정신적 불안, 소외감을 증대시켜왔다. 이러한 정신적 공백속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정신적으로 충실한 생활을 하려는 욕구의 하나가 삶의 질에 대한 지향과 관계가 있고 또 가치있는 인간생활에 대한 욕구는 편리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평온함을 주는 쾌적한 환

경에 대한 욕구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주영원, 1998).

삶의 질에 있어서 환경의 질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매우 크다. 김병국(1989)은 삶의 질 지표를 주로 도시환경의 질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편리성, 건강성, 쾌적성, 안정성이라는 차원으로 나누어 삶의 질에 있어서 환경의 질을 강조하고 있다. 21세기 삶의 질에 관한 지표 연구(1996)에서도 삶의 질 지표의 유형을 객관적, 주관적, 물질적, 비물질적 지표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객관적/물질적 지표에 생활오수의 처리, 상수도 보급률을 포함하고 있으며, 객관적/비물질적 지표에 쾌적성(쓰레기 발생량, 대기오염, 생활하수 등)을 평가하고 있어 환경에 대한 지표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제에 생활 오수의 처리시설을 100%로, 대기오염을 최소화, 폐기물 발생량은 1인당 약 400Kg, 200톤/Km², 산성비는 ph, 이하로, 효율적인 환경보전 관리체계의 확립, 환경과학 기술의 발전, 환경운동의 활성화, 환경보전의 생활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환경보호와 보전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주영원(1998)도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대되고 있으나 역으로 환경오염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역설함으로써 환경문제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제는 WTO 체제 출범에 따른 그린라운드가 본격화됨에 따라 환경관리는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나. 관련 변인 고찰

1. 주부연령

이성수(1996)는 연령이 어릴수록 환경오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환경의식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김영재(1998)도 나이가 많은 집단이 젊은 집단보다 환경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고,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으며, 환경보전의 식수준이 낮다고 하였다. 환경보전행동과 관련해서, Grazin과 Olsen(1991), 안길상 외(1993), 이영미(1994), 안향아(1994), 김영희(1995), 최남숙(1994), 이성수

(1996), 박운아 와 이기춘(1997)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폐기물의 배출, 수거, 처리를 연계해주는 협동시스템을 구축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환경관리행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삶의 질의 관계를 보면, Edwards & Klemmack(1973), Campbell(1976), 노유자(1988)는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했다. 한편 Alston, Lowe & Wrigley(1974), Spreitzer & Synder(1974), Andrew & Withey(1976), Sauer(1977)는 연령과 삶의 질은 무관하다고 하였다(노유자, 1988 개인용). Sauer(1976)는 미국시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측정에서 중년층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하였고, 하재구(1986)도 중년층이 청년층과 노인층보다 생활전반의 행복도가 높다고 하였다.

2. 주부교육수준

주부의 교육수준은 주부의 환경보전의식 및 행동과 삶의 질에 있어서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nlier(1980), Arcury와 Christianson(1990), 최남숙(1984), 홍기남(1992), 이승신 외(1993), 엄하정(1993), 변순희(1994), 이성수(1996), 김영재(1998), 이홍은(1998), 광인숙 외(1998)에서는 고학력을 가진 젊은 주부의 환경보전의식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환경보전행동과 교육수준과의 관계에 대해 서소연(2000), 최남숙(1984), 홍기남(1992), 안길상 외(1993), 엄하정(1993), Schan과 Hozer(1990)는 높은 교육수준의 주부가 재활용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환경보전행동이 높다고 하였다.

교육수준과 삶의 질의 관계를 보면, Andrew & Withey(1976), George & Bearon(1980)은 교육은 전생애를 통해 삶의 질의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하재구(1986)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전반에 대한 행복도가 높다고 하였고, 노유자(1988)도 교육수준에 따른 삶의 질 정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미국시민을 대상으로 한 Campbell(1976)도 교육이 주관적 안녕상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3. 소득

최남숙(1984), 서정희(1986), 변순희(1994), 이승신 외(1993), 노영화·강성진(1992), Tucker(1980), Webster(1985) 등은 일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환경보전을 위한 자원 재활용 수준과 그에 따른 행동 실천 수준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삶의 질의 관계를 보면, Bortner & Hultsch(1970), Clemente & Sauer(1976), Campbell 외(1976), Larson(1978)은 수입은 삶의 질을 나타내 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대두되고 있고 수입과 주관적 안녕상태를 긍정적 상관관계로 보아 수입에 대한 만족과 행복과는 관계가 크다고 하였다. 또한 노유자(1988), 노자경(1991)도 가정 월수입이 높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4. 주부의 취업유무

안길상 외(1993), 김영재(1998), 전윤숙·이희숙(1998)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취업유무는 환경보전행동에 어떤 유의한 영향력도 없으며, 무관하다고 하였다. 서소연(2000)은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라 환경보전의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환경보전행동에 있어서는 전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시간가용성의 이유로 환경보전행동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5. 주택의 형태

Oskamp(1991), 안향아(1994)는 단독주택에 사는 주부일수록 환경문제인식 정도는 높으나, 환경보전적 처분행동에서는 아파트 거주자가 높다고 하였다. 한편 서소연(2000)은 아파트 지역과 기타지역 등 거주지에 따라 주부의 환경보전의식변화를 유도할 수는 없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가 음료용기 분류배출행동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주택의 형태와 삶의 질의 관계를 보면, 노유자(1988)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사는 군이 단독 주택군보다 삶의 질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6. 결혼년수

노영아(1996)는 결혼지속년수가 11-15년의 집단이 생활폐기물의 처분행동에 가장 적극적이고 결혼지속년수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분행동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결혼기간과 삶의 질의 관계를 보면, 노유자(1988)는 결혼기간에 따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7. 자녀수

이정우(1981), Jackson(1983), 김영재(1998) 등은 가족수가 적을수록 근대적 가치의식을 가지며, 환경의식수준과 그에 따른 환경보전행동 수준도 높다고 하였다. 반면, 노남숙(1994), 광인숙 외(1998), Brooker(1975)는 가족원의 수가 많을수록 환경의식을 더 인식하며, 환경관리지식에 대한 인지수준도 높다고 하였다. 자녀수와 삶의 질의 관계를 보면, 노유자(1988)의 연구에서 자녀수는 삶의 질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8. 환경보전의식

환경보전의식은 환경보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Weigel과 Weigel(1978)과 노채영(1991)의 연구에 의하면 환경문제인식과 환경문제에 대한 행동사이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고 하였다. 또한 최남숙(1984, 1994)은 에너지절약의식이 높을수록 에너지절약행동이 높으며, 보편적으로 환경의식이 높을 때 환경보전행동은 잘 수행된다고 하였다. 임창희(2001)는 환경보전의식이 높은 주부일수록 적절한 식량의 식사준비를 함으로써 보다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였고 서소연(2000)은 환경보전의식이 높을수록 생활폐기물 재활용행동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체적으로 환경보전의식은 환경보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환경보전의식이 높을수록 환경보전행동이 잘 수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 관련변인에 따른 주부의 환경보전의식 및 환경보전행동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1-1) 관련변인에 따른 주부의 환경보전의식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1-2) 관련변인에 따른 주부의 환경보전행동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 주부의 환경보전의식 및 환경보전행동과 삶의 질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주부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가?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서울시 주부의 환경보전의식 및 환경보전행동과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총 83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구성내용은 환경보전의식 측정 22 문항, 환경보전행동 측정 20 문항, 삶의 질 측정 30 문항, 인구통계학적 변인 11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환경보전의식

환경보전의식은 도시 주부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수준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환경보전의식 문항의 척도는 국립환경연구원(1992), 이성수(1996), 엄하정(1993), 최남숙(1994), 조은미(1997), 이현석(1999), 서소연(2000), 조정원(2000) 등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하여 "매우 그렇다"의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보전의식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환경보전의식 척도를 구성하는 항목의 내적일관성을 나타내주는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7781$ 이었다.

2) 환경보전행동

환경보전행동은 도시 주부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행동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환경보전행동 문항의 척도는 노영화와 강성진(1992), 엄하정(1993), 최남숙(1994), 변순희(1995), 조은미(1997), 조정원(2000) 등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하여 "매우 그렇다"의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보전행동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환경보전행동 척도를 구성하는 항목의 내적일관성을 나타내주는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7960$ 이었다.

3) 삶의 질

삶의 질 척도는 삶에 대한 행복감, 생활환경만족, 정서적 만족 등 3가지 하위영역을 포함한다. 삶에 대한 행복감은 Rescher(1972)가 본 삶에 대한 높은 만족감이나 행복감의 정의에 따라 15문항으로 구성된다. 생활환경만족은 Young과 Longman(1983)의 현재 삶의 환경여건에 대한 만족 개념에 따라 건강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내용을 포함한 9문항으로 구성된다. 정서적 만족은 Dubos(1976)과 Padilla(1985)의 정신적 건강과 정서상태를 묻는 6문항으로 구성된다.

4) 관련 변인

관련 변인은 주부연령, 주부교육수준, 소득, 직업, 주택의 형태, 결혼년수, 종교, 결혼상태, 가족형태, 자녀수로 구성되었다.

주부의 연령은 실제 응답한 주부의 연령으로 하였다. 교육수준은 초졸, 중졸, 고졸, 초급·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소득은 한달 평균 수입으로 보너스, 이자, 집세, 부업소득 등을 합하여 12개월로 나눈 평균으로 하였다. 직업은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농어민, 기타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주택 형태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주택의 건물로 나누었다. 결혼년수는 언제 결혼하였는가를 물어 현재

시점에서 빼서 계산하였다. 또한 결혼상태와 가족형태는 배우자의 유무와 가족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녀수는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물었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서울시 거주 주부로 제한하였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부는 환경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고, 삶의 질은 극히 주관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주부를 통해 사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을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게 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조사는 2001년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에 걸쳐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434부를 회수한 뒤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총 410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검색과 부호화 과정을 거쳤으며 분석을 위해 SPSS PC*(Win ver.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분석, 기술통계, 빈도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t-test, 분산분석(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자료의 분석에 사용된 구체적인 통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변인에 따른 주부의 환경보전의식 및 환경보전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주부의 환경보전의식 및 환경보전행동과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가 산출되었다.

셋째, 주부의 삶의 질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환경보전의식 및 환경보전행동의 특성

환경보전의식, 환경보전행동은 관련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환경보전의식은 주부연령, 주부의 교육수준, 결혼년수 수준에 따라 집단간에 차이를 나타냈다. 주부의 연령에 따른 환경보전의식은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35세 이하가 평균 83.68점, 36-40세 이하가 평균 84.12점, 41-45세 이하가 평균 81.00점, 45세 이상이 80.79점으로 이는 41세 미만의 주부가 41세 이상의 주부보다 환경보전의식이 높다고 해석된다.

이는 이성수(1996), 김영재(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환경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으며, 현대에 오면서 그 오염도가 심각해지고 있어 연령이 어릴수록 이에 대해 더욱 심각함을 느끼기 때문에 환경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환경보전의식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고졸이하가 평균 80.73점, 전문대졸이상이 평균 84.36점으로 전문대졸이상이 고졸이하보다 환경보전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Vanlier(1980), Arcury & Christianson(1990), 최남숙(1984), 홍기남(1992), 이승신 외(1993), 엄하정(1993), 변순희(1994), 이성수(1996), 김영재(1998), 이홍은(1998), 광인숙 외(1998)의 연구와 일치하며,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가 환경교육에 접할 기회가 많으며, 환경에 대해 좀 더 알고 있는 주부가 환경보전에 대해 의식이 있어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연숙(1983)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융통성을 고려한 정도가 컸다고 하여, 교육수준과 관련된 의식의 효율성이 크다고 하였다.

주부의 결혼년수에 따른 환경보전의식은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결혼년수에 따른 삶의 질의 평균은 10년이하가 84.33, 11-15년이하가 83.12, 16-20년이하가 81.44, 21년이상인 81.13으로

〈표 1〉 관련변인에 따른 환경보전의식, 환경보전행동의 차이검증

변인	구분	환경보전의식			환경보전행동		
		평균	F, t	D	평균	F, t	D
주부연령 (N=408)	35세이하	83.68		A	72.28	F= .261	
	36-40세 이하	84.12	F= 4.135**	A	73.01		
	41-45세 이하	81.00		B	73.01		
	46세이상	80.79		B	73.55		
		80.73					
주부 교육수준 (N=409)	고졸이하		t= -4.295***		72.77	t= -.490	
	전문대졸이상	84.36			73.19		
소득 (N=397)	200만원 이하	82.57	F= .734		73.27	F= .933	
	201-300만원이하	81.75			73.74		
	301만원 이상	82.99			72.39		
주부의 취업상태 (N=408)	취업주부	81.45	t= -1.685		72.19	t= -1.443	
	전업주부	82.97			73.47		
주택의 형태 (N=410)	아파트	82.71	t= .838		73.31	t= .800	
	기타(단독주택,연립주택,오 피스텔 등)	81.98			72.62		
결혼년수 (N=400)	10년이하	84.33	F= 2.799*	A	72.48	F= .937	
	11-15년이하	83.12		A B	74.49		
	16-20년 이하	81.44		B	72.95		
	21년이상	81.13		B	72.62		
자녀수 (N=410)	2명 이하	82.60	t= 1.102		73.24	t= 1.129	
	3명 이상	81.47			72.02		

* p< .05, ** p< .01, *** p< .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혼년수가 낮을수록 환경보전의식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년수에 따른 삶의 질과 마찬가지로, 주부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환경보전의식은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높다는 결론에서 대체로 결혼년수가 낮은 집단의 연령이 어리다고 볼 때 이와 같은 요인이 결혼년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환경보전의식은 주부의 연령이 41세 미만이 41세 이상보다 높으며, 주부의 교육수준이 고졸이하보다 전문대졸 이상일 때 높으며, 결혼년수가 낮을수록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보전행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해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 환경보전의식 및 행동과 삶의 질의 관계

환경보전의식 및 환경보전행동과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주부의 삶의 질과 환경보전의식 및 행동과의 상관계수

환경보전	삶의 질 (N=410)			
	전체	행복감	생활환경 만족	정서적 만족
환경보전의식	.256***	.181***	.278***	.226***
환경보전행동	.192***	.205***	.115*	.130**

* p< .05, ** p< .01, *** p< .001

주부들의 환경보전의식 및 환경보전행동과 삶의 질 사이에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주부들의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과 행동과 삶의 질은 매우 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특히 환경보전의식이 환경보전행동보다 삶의 질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환경보전의식과 생활환경만족·정서적만족·행복감의 순으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환경보전행동은 행복감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정서적 만족이고 생활환경만족이 가장 낮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에서 환경보전의 필요성과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에 긍정적일 때 주부들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건강이나 가정 및 사회생활에 만족하며,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것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3. 관련변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주부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각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1차 단계별 회귀분석에서 p<.05 수

준에서 유의한 변인들을 선정한 후 이들을 기초로 최종인과모형을 결정하였다<그림 1>, <표 4>.

경로분석 결과 주부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득(.291)으로 나타났다<표 5>. 이는 선행연구 결과에서처럼 수입은 삶의 질을 나타내 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수입과 주관적 안녕상태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수입에 대한 만족과 삶의 질은 관계가 큰 것으로 보인다. 물론 행복감이 반드시 객관적인 부와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일정 수준의 소득은 생활속에 여유를 갖게 함으로써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수입은 부양가족을 더 나은 생활로 이끄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도약해 가는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삶의 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환경보전의식(.180)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일치이론을 지지하고 있는 다른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환경보전행동(.128)도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주부의 교육수준과 주부연령이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해 환경보전의식과 행동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직업을 통한 소득을 창출토록 해야하겠다. 교육은 전 생애를 통해 삶의 질의 결정요인이 되며, 보다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하는 기술과 능력을 증진시킬 수 원동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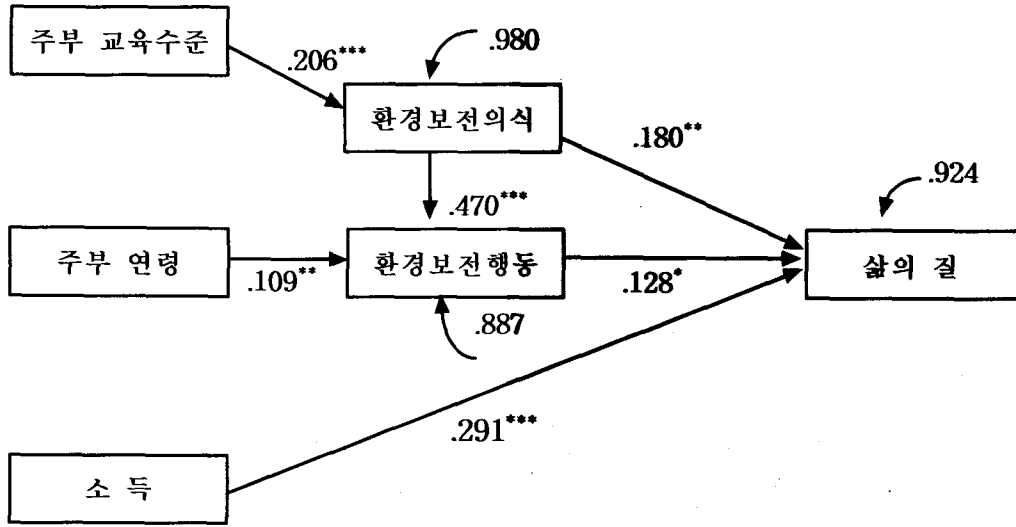
<표 3> 삶의 질 관련 변인 상관관계

(N=410)

변 인	주부 교육수준	주부 연령	소 득	환경보전의식	환경보전행동	삶의 질
주부 교육수준	-					
주부 연령	.269***	-				
소 득	.442***	-.055	-			
환경보전의식	.206***	-.147**	.028	-		
환경보전행동	.024	.040	-.049	.453***	-	
삶의 질	.267***	-.060	.290***	.251***	.201***	-
평 균	1.45	2.50	2.19	82.36	72.98	97.24
표준편차	.50	.98	.80	8.75	8.65	12.31

p< .05, ** p< .01, *** p< .001

〈그림 1〉 주부의 삶의 질 경로모형



〈표 4〉 경로모형 설정을 위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초기모델(β)	최종모델(β)
환경보전의식	주부교육수준	.206**	.206***
		R ² = .045 F = 3.574**	R ² = .040 F = 18.112***
환경보전행동	환경보전의식	.476***	.470***
	주부연령	.202**	.109**
		R ² = .224 F = 14.707***	R ² = .214 F = 56.407***
삶의 질	환경보전의식	.177**	.180**
	환경보전행동	.119*	.128*
	소득	.218***	.291***
		R ² = .137 F = 7.719***	R ² = .147 F = 23.819***

p < .05, ** p < .01, *** p < .001

된다. 특히 혈연, 지연 등이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아 고학력일수록 사회적인 지위의 확보가 용이하며 이에 따른 경제력이나 자아 실현감 역시 높기 때문에 교육은 중요한 것이다.

〈표 5〉 주부의 삶의 질 인과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인과효과
주부교육수준	-	.037	.037
주부연령	-	.013	.013
소득	.291	-	.291
환경보전의식	.180	.060	.240
환경보전행동	.128	-	.128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보전과 삶의 질에 대한 의식 및 행동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최종 목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환경보전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정신적 만족이라는 두 가지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주부들을 대상으로 서울 지역을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게 고

려한 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주부들을 대상으로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해 자료를 수집한 뒤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PC+(Win ver.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분석, 기술통계, 빈도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t-test, 분산분석(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관련 변인에 따른 주부의 환경보전의식 및 환경보전행동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부의 환경보전의식은 주부연령, 교육수준, 결혼년수, 삶의 질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주부의 연령에 따른 환경보전의식은 35세 이하 주부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45세 이상 주부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연령이 어릴수록 환경보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환경보전의식은 고졸이하보다 전문대졸이상 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부의 환경보전의식 수준이 높았다. 결혼년수에 따른 환경보전의식에 있어서는 결혼년수가 10년 이하인 주부들의 환경보전의식이 가장 높았고, 결혼년수가 21년 이상인 주부들의 환경보전의식이 가장 낮아 결혼년수가 낮을수록 환경보전의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보전행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해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주부의 환경보전의식 및 환경보전행동과 삶의 질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주부들의 환경보전의식 및 환경보전행동과 삶의 질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주부들의 환경보전의식 및 환경보전행동은 삶의 질과 매우 관계가 높고, 환경보전의식이 환경보전행동보다 삶의 질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주부들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건강이나 가정 및 사회생활에 만족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할 때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에 긍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셋째, 주부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득이며, 그 다음으로 환경보전의식, 환경보전행동, 주부의 교육수준, 연령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수입을 보장하는 기술과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삶의 질을 높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삶의 질은 개인적인 요소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을 기초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경보전의식 고양 및 환경친화적 행동 유도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부들의 삶의 질과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더욱 고안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보전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 문제는 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가 광역화되고 장기화되는 특성이 있고, 한 번 오염된 환경이 설령 회복 가능하다고 해도 많은 경비와 인력,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환경 문제는 해결보다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환경 문제를 예방, 극복 및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행정적 접근, 과학 기술적 접근, 교육적 접근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환경 문제는 법적 규제나 행정 단속으로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일정한 지역 내에서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근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교육적 접근이 가장 필요하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환경교육을 통해 주부가 경험해야 될 내용은 '환경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인식, 지식, 기능 및 참여하는 태도'이며, 궁극적으로는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행동이다. 오늘날 환경 보전 문제는

한 지역이나 한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주부 자신과 남편 또한 주부를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부터 환경보전적인 책임감과 생활 습관으로 환경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의 향상에 최종 목적을 둘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한정되어 조사되어 농·어촌 지역 주부의 삶의 질 수준과 환경보전의식 및 환경보전행동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못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환경보전의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환경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환경교육과 환경보전의식 및 행동, 그리고 삶의 질의 관계를 좀더 깊이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1) 고승덕(1996). 노인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추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영재(1998). 소비자의 환경보전행동에 관한 연구: 제주도 주부를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노남숙(1994). 주부의 환경관리인지도와 환경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노영아(1996).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생활폐기물 처분행동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노영화, 강성진(1993). 환경보전을 위한 가정소비생활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 6) 노유자(1988). 서울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노채영(1991).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광주시 여대생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박병윤(2000).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경제정책,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변순희(1995). 주부의 환경보전의식 및 행동에 따른 쓰레기처리에 대한 관심도: 서울지역 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서소연(2000). 주부의 환경보전의식과 생활폐기물 재활용 행동에 관한 연구: 음료용기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서정희(1997).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 및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5권 1호.
- 12) 안향아(1994). 주부의 환경문제인식정도가 환경관련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이동근(1998). 도시개발정책과 환경보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자료집).
- 14) 이성수(1996). 환경의식이 환경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시민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이영미(1994). 환경보전을 위한 주부들의 자원활용지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 16) 이현석(1999). 우리나라 주부소비자의 환경의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우리나라 7개 대도시의 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주영원(1998). 도시 주민의 삶의 질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8) 최남숙(1994). 서울시 주부들의 환경교육과 환경보전행동에 관한 연구: 가정폐기물 분류 배출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 하성재(1993). 도시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홍기남(1992). 생활환경문제에 대한 주부의 소비자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황택순(1992). 직장-가족갈등과 삶의 만족간의 관

- 계,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Anderson, W.T. & Cunningham, W.H.(1972). The Socially Conscious Consumers. *Journal of Marketing*.
- 23) Arcury, T.A. & Christiansen, E.H.(1990). Environmental Worldview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Problems: Kentucky 1984 and 1988 compared. *Environment and Behavior*.
- 24) Buttel, F.H.(1987). New Directions in Environmental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5.
- 25) Campbell(1972). *Aspiration, Satisfaction and Fulfillment: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Russell Sage Foundation.
- 26) C. B. JACKSON(1979).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as Predictors of Perceived Well-Be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 27) Dunlap, R.E. & Catton, W.R.(1979). Environmental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5.
- 28) Granzin, Kent L. & Olsen(1991). Characterizing Participants in Activities Protecting the Environment: A Focus on Donating, Recycling and Conservation Behavior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Marketing*, 10(2).
- 29) JR. Tucker(1980). Identifying the Environmentally Responsible Consumer: The Role of Internal-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Winter, Vol. 4, No. 2.
- 30) Oskamp, S.(1983). Psychology's role in the Conserving Society: Population and Environment. *Behavioral and Social Issues*, 6.
- 31) Oskamp, S. et al.(1991). Factors Influencing Household Recycling Behavior. *Environment and Behavior*, 23(4).
- 32) Peters, W.H.(1973). Who Cooperates in Voluntary Recycling Efforts? *American Marketing Combined Conference Proceedings*, AMA: Chicago.
- 33) Schneider, M.(1976).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dicators Researc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34) Van Liere, K.D. & Dunlap, R.E.(1980). The Social Bases of Environmental Concern: A Review of Hypotheses, Explanations and Practical Evidence. *Public Opinion Quarterly*, 44
- 35) Weigel, R.H & Weigel, J.(1978). Environmental Concern :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Environment and Behavior*. Vol. 10, pp.3-15